

사회 >> 3면

투표용지 부족 논란, 드러난 선거관리 허점

기획 >> 4면

‘투자’ 인가, ‘도박’ 인가? 차트 위의 청춘들

현장르포 >> 5면

지역을 맛보는 새로운 방법

제601호

2026년 8월 6일(목)

나만의 똑똑한 비서 ‘AI스콘 베타테스터 모집’

지난 5월 5일부터 22일까지 본교 자체 AI 프로그램인 ‘AI스콘 베타테스터’를 모집했다. AI스콘은 서경포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화형 AI서비스로, 학생의 성적, 수강, 학업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돼 학업 및 학교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베타테스터에 선발되면 △수강 및 학업 관리 △장학·등록조회 △취업·진로 정보 △학교생활 및 시설 안내 등 질문을 해 40회 이상 만족, 불만족 피드백을 남겨야 한다. 필수 미션을 완료하면 오는 10월 29일까지 AI스콘 이용 권한을 얻게 된다.

베타테스터들이 직접 AI스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AI스콘에게 교내 무선 인터넷 정보를 물어봤더니 교내 와이파이 연결 방법과 장애 신고 및 문의 관련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내에서

물건을 분실했다고 문의했다. 분실물 보관 장소와 관련 부서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전과 및 휴학 방법을 질문했다. 전과는 질문자의 소속과 이수 학기를 고려해 전과 가능 시점을 설명했고, 휴학은 필요서류와 관련 부서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의 학업 현황 등을 연계해 정보를 제공했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존재했지만, 부족한 점 또한 있었다. 베타테스터가 신문사가 어디 있는지 질문했다. AI스콘은 청운관 704호에 있다고 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청운관 7층 705호에 있다. 교내 시설에 대한 정확성은 다소 떨어졌다.

AI스콘은 서경포탈,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창의산학교육원의 데이터를 연계해 답변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AI스콘이 생성한 질문에 첨부된 링크에 한번 더 접속해 정보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 AI스콘은 크레딧을 100% 소모하면 사용이 불가하다. 매월 15일에 크레딧 사용량은 초기화된다.

서경포탈에 접속해 상단 알림창 옆 스콘 이미지를 클릭하면 AI스콘을 사용할 수 있다. 정보전산원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어떤 경우에도 작성 및 첨부하지 않길 당부하고 있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부담없는 새로운 경험

2026년도 공연맛보기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공연 맛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연 맛보기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융합 1·2 및 자율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공연 맛보기 프로그램은 뮤지컬-〈웨딩싱어〉, 한국무용, 연극-〈화염〉,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공연들은 사전에 서경 포탈로 관람 신청을 받았다.

이번 공연 맛보기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에게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각 장르의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예술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도 높일 수 있었다. 공연 맛보기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연 맛보기에 참여한 A(미용 26) 학우의 인터뷰를 전한다.



A. 앞으로 이런 공연이 있다면 프로그램에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다! 선배들의 멋진 공연을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Q. 공연을 직접 관람해 보니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무대연출과 선배 배우분들의 연기 실력에 감탄했고, 음향효과나 조명 연출이 무대에 몰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그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Q. 앞으로도 이런 공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공연맛보기 프로그램에서 기대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A. 공연이 길어지는데 시간까지 늦어지면 귀가 시 막차를 놓치진 않을까 하며 불안해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공연 시작 시간을 조금 일찍 앞당기거나 전체 공연 시간을 줄여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린 수습기자

(pphrr0904@naver.com)

‘졸업, 그리고 나의 새출발’ ...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제7회 졸업 전시회 성료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서경스퀘어 스킨갤러리(31층)에서 우리대학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와 제7회 졸업 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는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0일과 3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많은 학우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졸업 전시회의 주제는 ‘현현(顯現)’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졸업작품 전시를 넘어 내면의 사유와 자아에 대한 탐구를 메이크업, 기획, 논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각 작품에는 졸업생들의 정체성과 비전, 새로운 출발을 향한 의지가 담겼다.

전시는 △여단 △정야 △감응 △조망 등 네 개의 구간과 향수·이벤트 존으로 구성됐다. 여단과 정야 구간에서는 메이크업과 사진 작업을 활용한 개인 및 팀 작품을 선보였으며, 감응 구간에서는 상품 기획, 조망 구간에서는 미용 관련 논문을 전시했다.

특히 작품 파트는 여단팀과 정야팀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콘셉트와 이야기를 담은 개인작과 팀작을 함께 선보여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를 더했다. 또한 각 파트의 콘셉트를 향으로 구현한 향수를 직접 제작해 관람객들이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작품에는 방명록을 남긴 관람객에게 작품 콘셉트에 맞는 스티커와 키링을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벤트 존에는 방명록과 뷰티 브랜드 협업 공간이 조성됐다. 관람객들은 방명록을 작성하고 인스타그램에 #fwee_makeup 해시태그와 함께 스토리를 게시하면 협찬 브랜드의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졸업 전시회 기획과 운영을 총괄한 졸업준비위원장 이은영(뷰메 23) 학우는 졸업 전시 소감을 묻는 말에 “오랜 시간 준비했던 전시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앞두니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며 운을 뗐다. 또 “학우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전시를 준비한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학우는 “브랜드 fwee의 협찬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더욱 풍성한 전시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사 령

8월 6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면 부편집장	김호성 (미용1 25)
▶ 면 수습기자	이요한 (미용2 25)
▶ 임 부편집장	김서연 (미용2 25)



자세히 보는 이슈

투표용지 부족 논란, 드러난 선거관리 허점

6·3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교통·복지·교육·도시개발 등 생활과 맞닿은 공약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선거는 정책보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고, 일부 투표소는 투표를 일시 중단했다. 지역별로 투표 종료 시각이 달라지며 혼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회용 의원실은 지난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문제의 조짐은 선거 당일 이전부터 나타났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긴급 수송과 쿼서비스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이는 사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대학가도 목소리를 높였다. 본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 학생 자치 기구는 입장문을 내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 첫 번째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문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선관위 일부 위원들은 선거 전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



▲ 출처 : TV조선

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단순 인쇄량 부족만으로 지난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점이다. KBS가 공개한 전국 투표용지 인쇄 현황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일부 지역은 선거인 수 60% 이상을 인쇄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반면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남아 있는 지역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인쇄량 축소에만 돌리기 어렵고, 지역별 배분과 현장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논란은 단순한 현상 실수보다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추가 공급 사례는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선에서도 있었지만, 투표 중단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의 공정성은 개표 결과뿐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한 만큼 지난 논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택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스타벅스 ‘탱크데이’, 소비자 분노 부른 부적절한 마케팅

책상에 탁!

5/18

*오전 10시 오픈

7

함께라서 더 좋은, 데스크 필수템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

*SS 탱크 텀블러 503ml 2종 구성

7

귀여움 가득한 미니와 함께 즐기는 탱크 듀오 세트

*SS 미니 탱크 텀블러 133ml + SS 탱크 텀블러 503ml 구성

세트 10% OFF

21% OFF

▲ 출처 : 스타벅스 온라인

지난 5월 18일(월),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와 ‘탱크 듀오 세트’를 선보였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이벤트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려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이벤트 페이지에 포함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불거지던

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스타벅스는 행사 시작 3시간 만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중단하고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사과의 진정성과 문제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기획 단계에 서부터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모자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단순한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19일(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그룹을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

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6일(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다고 전하며 이번 논란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으니 현장 직원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스타벅스는 6월 1일(월)부터 6월 14일(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잔액 환불을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7일(수),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기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와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19년, 박종철 열사를 회화화한 문구로 논란이 된 무신사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세 차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뒤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가 사과했다. 이번 사태로 논란이 다시 확산하자 무신사 측은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다시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스포츠계에서도 불거졌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공식 유튜브 영상 자막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구단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관련 대행사 직원을 업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내가 상위 30% 부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폭등했고, 물류비와 생산비용의 도미노 인상을 불러왔다. 외식 물가와 생필품 가격이 치솟는 동시에 고물가 상황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민생 경제가 침체됐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4월,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으로 이뤄진다.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차 기간에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 중 선택해 신청한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의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앞서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가 대상이었던 반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다.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지급 대상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됐다.

선정 기준 시점 이전, 과거 소득이



▲ 출처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페이스북

반영된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출산이나 세대 분리, 가족 구성원 변동 등으로 가구 구성 여건이 바뀐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약 13만 4,000건을 기록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 현금 지원을 통해 물가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발성 성격이 강해 장기 경기부양보다는 물가 충격 완화와 지역경제 방어책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규모 자금 투입은 자칫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누적됐기에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고물가와 고환율을 잡

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약 26조 원 자금 투입은 아이러니하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을 풀고,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동 전쟁이 지속될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나는 8월 말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체감할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소상공인과 물류·유통 업체를 위한 유가 보조금 제도 등을 설계하고 물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황세빈 수습기자
(hsb061207@gmail.com)

관악산 야호! 기운을 찾는 젊은이들



2030 사이에서 관악산 등산이 유행하고 있다. 한 예능 방송에서 역술가가 “관악산에 3번 오르면 소원이 이뤄진다”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관광센터 관악산점의 2026년 5월 방문객은 5,521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3,909명) 대비 4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내 첫 ‘운세 박람회’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가 열리기 전 500명이 오픈런을 했고, 1시간 만에 상담 예약이 마감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주·운세의 수요가 늘었다. 과거 사주·운세는 미래를 예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고, 특정 장소에 방문해 사주·운세를 볼 수 있었다. 현재는

소셜미디어와 AI의 발달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서 비대면으로 가볍게 운세를 점칠 수 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MBTI처럼 자신의 성향과 상태를 해석하는 ‘자기탐색 도구’로 인식된다.

이들은 탐색에 그치지 않고, 개운을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팔찌 등 제품을 구매하거나, 등산과 같은 행위로 기운을 받으려 한다.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풍수 인테리어 기획전을 열고 저렴한 가격의 부적 아이템을 선보였다.

예전에는 단순히 예쁜 소품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기운을 채운다는 설명이 붙은 아이টে

속의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2030은 사주를 맹신하기보다 하나의 콘텐츠로서 소비하고 있다.

평소 일일 운세를 보는 20대 A씨는 “운세가 좋으면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좋은 일이 많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운세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처럼 느껴진다”며 “하루의 기분이 운세에 따라 맞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내 운세가 안 좋았을 뿐이다 생각하고, 가볍게 털고 넘어갈 수 있다”면서 “사주에 부족한 게 있다면 팔찌라도 차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한다”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커진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인간관계, 진로 고민 등 명확한 답을 얻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고, 감정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감지된다”며 사주·운세 수요 증가를 설명했다.참고: 한국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 이면에 자리잡은 사회 구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임시 위주 경쟁 교육 속에서 ‘나’를 탐색할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이라는 현실에 부딪히자,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주·운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주·운세를 인생의 정답지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참고: 불교신문.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주식과 가상화폐를 비롯한 각종 투자상품이 어느덧 대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과거에는 학생이 아닌 직장인이나 중장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졌던 투자가 이제는 젊은 층에게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로 인식된다. 치솟는 집값과 물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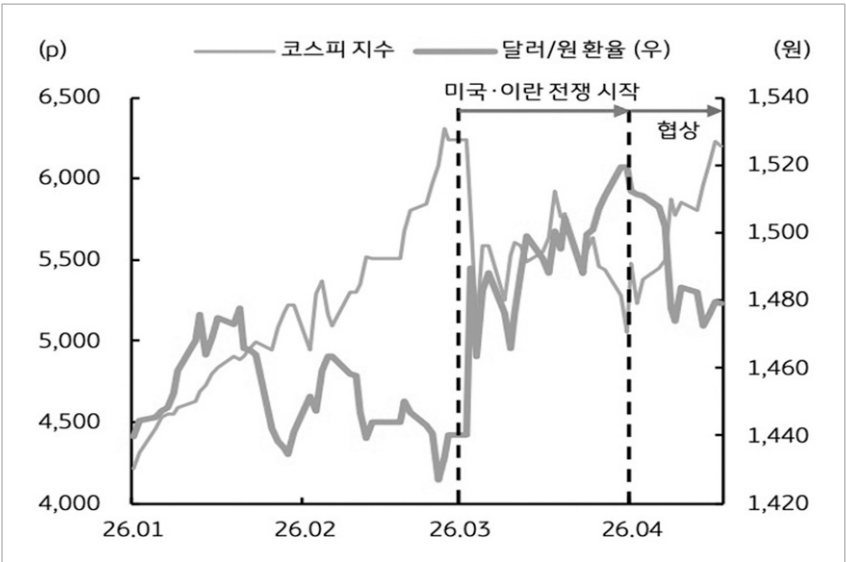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학생들 역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대학생에게 투자 경험은 경제관념을 기르고 목돈을 마련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충분한 금융 지식과 위험 관리 없이 단기간의 높은 수익만을

쫓는 투자 문화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도박과 같은 투기로 변질되기도 한다. 학업과 대인관계 대신 시세 변동에만 몰두하거나,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투자에 사용하는 사례는 대학생 투자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자산 형성의 수단일까, 아니면 순간의 수익과 '도파민'을 좇게 하는 도박일까. 본지는 대학생 투자 열풍이 확산된 배경과 그 이면을 살펴보고, 투자의 긍정적인 역할과 과열 양상이 공존하는 현실을 짚어봤다. 아울러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금융교육과 사회적 과제도 함께 살펴봤다.

커져가는 투자 열풍... 시작은 어디?



▲ 출처 : KB의 생각

최근 투자시장의 활기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식뿐 아니라 가상 자산,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며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 열기의 바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먼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6월 22일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며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이란은 보복에 나서 이스라엘 본토와 미군이 주둔한 국가 그리고 기타 중동 국가에도 공격을 가하며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러한 긴장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하는 상선을 공격했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와 환율도 상승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함께 커져, 전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이 적었던 사람들도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게 됐다.

투자시장을 활발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에는 생성형 AI의 발전도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때때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 기업은 대표적인 AI 수혜 기업이 된 것이다. 이

외의 반도체 기업들 역시 수요가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은 AI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관련 종목과 ETF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졌다.

위와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투자의 종목과 선호도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 투자 종목에는 대표적으로 '주식', '코인', 'ETF' 등이 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과 실적에 따라 주가의 변동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또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코인의 경우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나 세계 경제 상황,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안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어 투자 위험이 크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둘 다 투자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이나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는 위험부담을 낮추어 준다.

이 외에도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접근성이 좋아졌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주식과 코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거나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투자 문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취재부는 우리대학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만나 건강한 투자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금융 지식과 투자 태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최근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A. 정보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확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정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만 집중하기보다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만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현금화하는 등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이해력으로 세우는 나만의 투자 원칙



▲ 출처 : 한국일보

Q. 건강한 투자 문화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과 태도는?

A.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투자 관련 서적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금융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습관입니다. 종합주가지수나 S&P500, 나스닥 지수, 환율, 유가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 동아리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무리한 대출 투자나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경계해야 합니다.

대가 곧 건강한 투자 문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 교수는 꾸준한 금융 학습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주식·ETF 투자 △신용관리 △자산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투자 역량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 습관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식도 함께 기를 수 있다. 또한 증권사(△DB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가 개최하는 모의투자대회는 참가자들이 실제 투자 환경을 경험하고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 역량을 익히도록 돕는다. 유행이나 주변의 권유에 흔들리기보다 이러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적극 활용해 금융 이해력을 높인다면, 대학생들의 투자 경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학생들에게 투자는 더 이상 낯선 활동이 아니다. 하지만 투자 참여 확



미래를 위한 첫걸음, 대학생 투자

이번 본문에서는 대학생들의 투자 관심이 늘어난 배경과 그 이유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해 주식과 코인 등의 투자로 다양한 금융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투자 정보를 접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제 플랫폼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활용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생들은 단순히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투자 방법 등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 줘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더불어, 평소엔 주식을 비롯한 투

자에 관심이 많은 이에게도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금융 관련 교양 과목은 수강 신청이 열리자마자 마감되기도 한다.

모의투자대회 활성화도 대학생들의 투자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모의투자대회는 사이버머니를 활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 환경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시장 분석과 자산 배분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금융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식 및 투자를 시작하기 쉬운 세상이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이에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 투자에 앞서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이해와 흐름을 익히고 실전 투자를 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 시기에 투자에 대해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먼저, 대학생들이 금융과 자산 관리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무분별하게 시작하는 투자는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전한 투자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대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쌓는다면, 투자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올바른 투자관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등이 지



‘투자’ 인가, ‘도박’ 인가?

차트 위의 청춘들



한국에서

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하락했던 주식과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회복되면서 투자 열풍이 일었다. 이에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층 역시 자산 형성을 위해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청년층의 투자 참여가 늘어난 배경은 복잡하다. 치솟는 집값과 물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근로 소득만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과 거래가 가능한 환경,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투자 정보의 확산이 맞물리며 투자는 일상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방증하듯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 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6만 명에 이르렀으며, 20·30대가 전체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접근성이 투자 위험까지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과 경기 흐름에 따라, 가상화폐는 제도 변화와 시장 심리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가상화폐는 가격 제한 폭이 없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투자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과 청년층에게는 손실 위험보다 높은 수익 가능성이 더 두드러지



청년 투자 전성시대, 그 이면은

면서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투자 열풍 속에서 등장한 '영끌'과 '빚투'라는 신조어에서도 드러난다. 영혼까지 팔아모아 투자하고, 빚을 내어 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용어들은 무리한 투자 문화가 청년층 사이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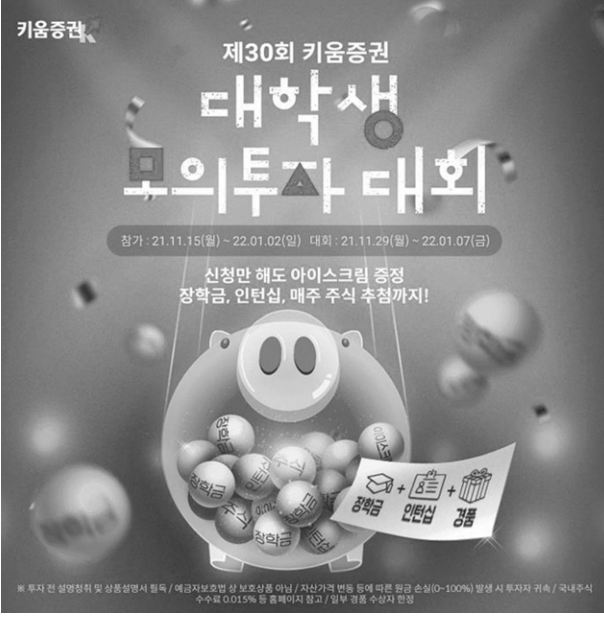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일상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의 높은 투기성과 도박성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중독 예방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10대 시절부터 주식과 가상화폐에 6년 이상 투자해 온 서울 소재 대학생 이상준(가명·23·남) 씨는 충분한 이해 없이 시작한 투자의 위험성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10분 만에 300%의 이익을 얻은 적도 있지만, 바로 다음 10분 만에 50%의 손실을 본 적도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설명했다. 이어 "돈을 잃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프만 보게 된다"며 "실제로 큰 손실을 보면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최근 일부 금융 플랫폼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쉽게 접근하도록 안내하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안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이해와 위험 관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 청년들의 투자 열풍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바라보기보다 이를 부추기는 경제적 여건과 금융 교육의 공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전한 투자 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투자는 '한탕'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 출처 : 연합뉴스

지역을 맛보는 새로운 방법

“제천은 의림지, 춘천은 감자, 이천은 쌀...”
어릴 적 사회 교과서 속 지도와 삽화로 만날 수 있었던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산물과 자연. 유서 깊은 이름들이지만, 언젠가부터 어딘가 고리타분한 이미지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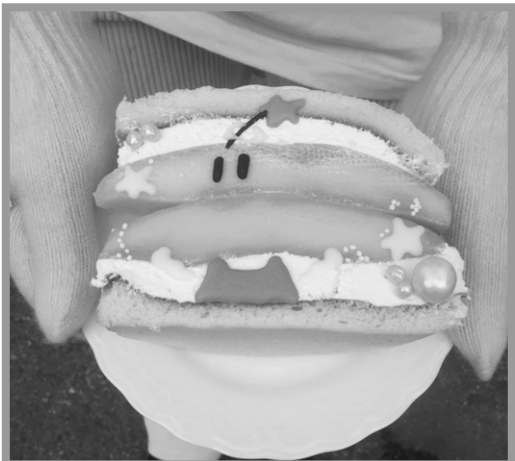
하지만 오늘날의 지역은 다르다. 지자체는 더 이상 오래된 명소와 특산물만으로 지역을 알리지 않는다. 청년 창업가와 지역 기업,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익숙한 자연

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혀 지역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강원도의 감자는 감자빵으로, 대전은 성심당과 꿈돌이를 앞세운 관광도시로, 오랜 문화유산인 제천 의림지는 현대적 콘텐츠를 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이 스스로 가치를 확장해 가는 모습을 살펴봤다. 먼저 로컬 브랜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들어봤다. 이어 대전과 춘

천, 제천을 직접 여행하며 역사와 문화, 특산물이 재탄생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교과서 속 이미지를 벗어던진 지역의 변신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해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지금, 국내 여행은 단순한 유희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가능성과 매력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독자들 역시 익숙했던 지도를 새로운 시선으로 펼쳐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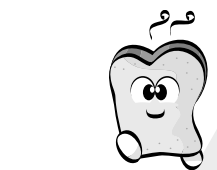


▲ 출처 : 원잇투메종탄방 인스타그램

재탄생한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

대전 여행의 시작점은 단연 성심당이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전빵집으로 출발한 성심당은 오늘날 대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로컬 브랜드로 성장했다. 현재 대전은 본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문 케익부띠끄, 시루 라인을 특화한 시루케익전문점, 샌드위치정거장 등이 성심당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단연 시루 시리즈다. 과일을 아낌없이 얹어부는 비주얼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직접 맛본 시루 케이크는 빵보다는 떡에 가까운 쫄쫄한 시트와 과일의 비율이 1대1에 달해 찰진 식감을 좋아하는 이들의 입맛에 더 부합할 듯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다른 구움과자 성지인 정동문화사로 향했다. 대표 메뉴인 휘낭시에는 그야말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정성을 보여주며 초코초코츄, 무화과 크림치즈, 솔타카라멜 등 감각적인 라인업으로 손님들의 트레일을 빠르게 채운다.

입을 달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채울 차례다. 선화동 노포 관천식당은 대기표와 예상 시간을 안내해 손님들이 줄을 서는 대신 근처 골목을 둘러볼 수 있다. 간단한 식감의 두부 두루치기에 수육을 곁들이거나 칼국수 사리를 비벼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찾은 한발수목원은 깔끔하게 정돈된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 수목원으로, 별도의 입장료 없이 푸른 잔디광장과 울창한 숲을 내어주는 완벽한 힐링 코스다.

이처럼 대전의 골목길은 저마다의 맛을 품고 있다. 최근 대전은 ‘빵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역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를 활용한 후식 점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 마스코트가 현대 로컬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핵심 콘텐츠로 부활한 중심에는 대전시의 영리한 브랜딩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꿈돌이는 예능 프로그램인 <내 꿈은 라이언>에서 수석 줄업을 차지하며 시작됐다. 대전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순한 일회성 소비를 넘어 전면적인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엑스포의 상징이었던 우주요정 세계관을 다듬고, 배우자 꿈순이와 대박이, 버리, 뿌리 등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자녀들로 구성된 꿈씨 패밀리라는 거대한 캐릭터 가문을 구축했다.

여기에 꿈돌이의 아간 순찰과 같은 스토리 중심의 스탬프 콘텐츠를 적극 제작하며 SNS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다. 이러한 탄탄한 이야기는 90년대를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캐릭터 서사에 열광하는 요즘 Z세대에게는 탁월 문화를 제공했다.

나아가 대전역에 위치한 여행 포토존 겸 굿즈숍인 꿈돌이 하우스는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인증샷 코스가 되었고, 수도권 대형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는 오픈된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적인 인기가 엄청났다.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꿈돌이 디저트를 개발했다. 이는 방문객이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단순히 눈으로 구경하지 않고 직접 먹고 사진을 찍으며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성심당과 꿈돌이의 사례는 현대 로컬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준다. 브랜딩의 대상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의 노포나 가게가 될 수도 있고, 시대를 초월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가상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시에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세련된 감각을 입혀 매력적인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다. 대전은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유연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독창적인 로컬 브랜딩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외면받던 감자 한 알, 모두의 감자빵이 되다

2022년 여름, 친구와 함께 춘천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거창한 계획은 없었다. 그 유명한 닭갈비를 먹고, 레일바이크를 타며 하루쯤 쉬다 오자는 정도였다. 무더위를 피해 잠시 들를 카페를 찾던 중 친구가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다. “여기 어때? 유명한 곳인가 봐.” 그곳은 춘천 신북읍의 카페 ‘감자밭’이었다.

당시만 해도 기자에게 춘천은 ‘닭갈비의 도시’ 내지 ‘손흥민의 고향’ 정도였다. 감자를 내세운 카페라니, 아무래도 반짝 명성을 얻은 ‘SNS용 명소’쯤이었거나 싶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예상은 빗나갔다. 농부 같은 차림의 직원들, 감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와 문구, ‘탈아가시오’, ‘발압하는 곳’ 등의 재치 있는 안내판까지. 공간 곳곳에는 색다른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무엇보다 감탄한 것은 ‘감자빵’이라는 대표 디저트였다. 흙에서 막 캐낸 감자를 얹은 생강새도 인상적이었지만, 쫄깃한 반죽 속 포슬포슬한 감자의 식감은 더욱 놀라웠다. 결국 나는 감자빵이라는 춘천의 신문물을 한가득 사 들고 서 울로 돌아왔다.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건 꼭 따뜻할 때 먹어봐야 한다”며 데워 온 감자빵을 하나씩 나눠주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당시만 해도 낯선 디저트였던 감자빵은 이제 춘천을 대표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감자빵이 춘천의 새 명물이 된 이유는 단순히 맛이나 모양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시작에는 팔리지 못한 감자와 지역 농업에 새로운 길을 만들려 한 어느 청년의 고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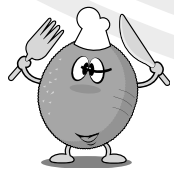
감자빵을 만든 신생 주식회사 ‘밭’의 이미지 대표는 춘천에서 감자 농사를 짓던 아버지를 돕다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아버지가 재배한 감자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수미감자’가 아닌 그 외 품종의 감자였다. 품종 다양성을 지키고자 키워지만 수요가 없어 수십 톤이 폐기될 위기였던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감자의 가치를 살릴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시행착오 끝에 결국 감자를 속 얹은 감자빵을 개발했다. 그리고 감자빵은 그렇게 지역 농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

새로운 방식의 사회 기여를 목표로 주식회사밭은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며 품종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과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 철학은 청년 인재들을 춘천으로 이끌었다. 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드와 일자리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 이미 소 대표는 “21세기 농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농업이라고 정의한다.

춘천 감자빵은 이제 지역과 국경을 넘어 글로벌 디저트로의 변신도 꾀하고 있다. 또한 카페 감자밭은 2024년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 ‘춘천 감자 축제’를 개최하며 감자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잇고 있다.

이렇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태어난 디저트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농가와 청년을 연결하며, 지역이미지 또한 새롭게 만들어냈다.

시작은 팔리지 못한 감자였다. 하지만 그 감자는 이제 사람을 춘천으로 불러 모으고, 청년을 서울이 아닌 곳에 기꺼이 머물게 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이름이 됐다.



▲ 출처 : 감자밭

특산품을 넘어 ‘경험’을 판다...

로컬 브랜드가 그리는 지역의 내일

과거 지자체들이 지역 특산물이나 유적지를 단순히 홍보하고 관광하게 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스토리를 감각적인 콘텐츠로 녹여내는 ‘로컬 브랜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최근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시는 남자>의 흥행에 힘입어 영월 ‘단종문화제’에 역대급 최대 인파가 몰린 현상은 콘텐츠가 가진 로컬 브랜드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 소멸의 구원투수로 활약하는 로컬 브랜드의 생존 공식은 무엇일까. 지역사회교육(생애학습기반경영전공)을 공부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된 지자체 정책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이사(지방소멸대응·로컬혁신전략위원회 위원장)로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대학 공공인재학부 김보람 교수를 만나 그 답을 구했다.



Q. 로컬 자원이 매력적인 브랜드로 탈바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A. 로컬 브랜드는 단순히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자원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를 사람들의 일상 속 경험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로컬 브랜드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 고유성(Local Identity)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역사, 문화, 사람이라는 ‘지역다움’을 발견해야 비로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둘째는 공감을 얻는 스토리텔링(Story)이다.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은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해석하는 스토리에서 시작된다. 셋째는 방문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콘텐츠(Experience)다. 넷째는 주민과 청년, 기업이 함께 주도해 자생력을 갖추는 협력 생태계(Ecosystem)이며, 마지막은 디지털 기술과 AI를 활용해 지역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연결하는 확장성(Scale-up)이다. 결국 로컬 브랜드의 본질은 자원의 소비를 넘어 ‘지역의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것’에 있다.

Q. 성공적인 로컬 브랜드가 실제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지역 소멸의 본질은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로컬 브랜드는 관광객을 모으는 것을 넘어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주고, 주민에게 자부심을 주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활력 엔진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국내 사례가 강원도 양양이다. 전형적인 고령화 소멸 위기 지역이었던 양양은 지난 2013년 한 청년이 군사 제한 구역이던 하조대 해변에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인 ‘서피비치’를 열면서 2030 세대의 성지로 거듭났다. 양양의 서핑 관광객은 2019년 약 18만 명에서 2022년 약 46만 명으로 3년 만에 2.6배 급증했고, 서핑 산업의 경제 효과 역시 약 3배 성장했다.

더 주목할 변화는 교육 현장이다. 전교생이 9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몰렸던 현북초등학교는 서핑 체험 특성과 학교로 변신한 후, 전학생의 75%가 외지에서 찾아오며 현재 4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로컬 브랜드 하나가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젊은 가족을 지역으로 이끈 셈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브랜드는 유명한 지역을 넘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든다.

Q.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남기 위해 경계해야 할 점은.
A.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브랜드는 남았지만 지역은 남지 않는 현상’이다. 보여주지식 행사나 단기 유행만 좇다 보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은 희석되고 만다. 다른 지역 성공 사례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획일화도 피해야 한다. 경쟁력은 비슷함이나 다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로컬 브랜드의 진정한 주인은 행정이나 시설이 아닌 주민이다. 주민이 기획자가 되고 청년이 창업가가 돼 함께 협력하는 참여형 구조를 만들 때 브랜드는 비로소 세대를 잇는 생명력을 갖는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로컬 브랜드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관광객이 아니라 주민의 자부심을 먼저 채우는 브랜드다.

Q. 우리 청년 세대가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로컬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아직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돼주길 바란다. 지역의 가장 큰 보물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익숙한 속에 숨어있다. 그 당연함의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 로컬 브랜드의 시작이다.

교과서 밖으로 빠져 나온 2천 년의 저수지

상수동에서 자동차에 몸을 실은 지 두 시간 남짓, 기차는 의림지에 내렸다. 주차장에서 5분쯤 걸으니 거대한 물그릇이 눈앞에 펼쳐졌다. 둘레 약 1.8km, 수심 8~11m에 이르는 의림지다. 학창 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갑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이라는 한 줄로 외웠던 그곳. 시험이 끝나면 마릿속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던 이름이, 막상 발을 디디니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의림지의 첫인상은 ‘박제된 유적’이 아니었다. 호수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에는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하는 시민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사진을 남기는 관광객이 뒤섞여 있었다. 수백 년을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이 물가에 늘어선 일기도 했다. 나무 사이로 자연폭포와 수경분수가 시원하게 쏟아졌다. 호수 한편에는 순조 7년(1807년)에 세워진 영호정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가 자리해 운치를 더했다. 2천 년 전 누군가 부업토를 다져 쌓은 제방 위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기차가 의림지에 도착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저수지는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유산이다. 함께 거론되는 벽골제와 수산제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인 반면, 의림지는 여전히 인근 농경지에 물을 대는 관개시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천(堤川)이라는 지명 자체에 ‘뚝’의 의미가 담겨 있을 만큼, 이 물그릇은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다.

다만 ‘오래됨’만으로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어렵다. 제천시가 택한 방법은 교과서 속 박제된 이미지에 현대적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었다. 호수 옆에 들어선 의림지역사박물관은 2천 년 수리 역사를 영상과 모형으로 풀어내 방문객의 발길을 잡았다. 겨울이면 제천 특유의 추위를 살린 빙어 콘텐츠가 더해진다. 의림지의 빙어는 담백한 맛으로 이름이 높아졌 잡은 빙어를 튀겨 파는 노점과 인근 식당이 겨울 별미를 찾는 이들로 붐빈다. 교과서 한 줄짜리 유적이 사계절 콘텐츠를 갖춘 명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호숫가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으며 숨을 골랐다. 강의실과 자취방을 오가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2천 년의 시간이 고인 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의림지에서 멀지 않은 제천 중앙시장에 들러 지역 먹거리로 허기를 채우거나, 청풍호반 케이블카까지 즐긴다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교과서가 가르쳐 준 의림지의 의미는 ‘삼한시대 저수지’라는 단편적 지식에 그쳤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의림지는 2천 년의 역사를 품은 채 오늘도 사람과 물과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공간이었다. 박물관과 둘레길, 겨울 빙어까지 끊임없이 새 옷을 갈아입으며 변모하고 있다. 즉, 낡은 유산이 아니라 가고 싶은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제천이 의림지에서 길어 올린 답이다.





방학이다. ‘방학’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고등학교 생활시간이 었다. 무슨 말씀 끝에, 선생님이 칠판에 ‘방학’ 두 글자를 한자로 쓰더니, 우리한테 물으셨다. “이 放(방) 자가 무슨 방자인 줄 아는 사람?” 내가 대답했다. “놓을 방”입니다.” 역시 복구는 한자 실력이 좋다면 칭찬하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선생님의 그 칭찬이 씨앗이 되었는지, 국어 과목을 계속 잘하여 국문학박사가 되고 교수까지 역임했으니, 잊을 수 없는 글자가 ‘방학’이다.

말 그대로, 방학은 ‘배움에서 놓이는 것, 해방되는 것’이다. 교육과 정장 정해 놓은 공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의 배움을 경험하는 게 방학이다. 정규 과목을 이수하느라 보류했던 공부와 체력을 충분히하는 시간이다. 내가 대학생일 때, 나는 방학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기도 했다. 야간대학일 때라서,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과외지도)가 제한되었다가, 방학에는 여러 틈을 지도할 수 있어서 바빴다.

지금 내가 다시 대학생이라면? 두 가지를 꼭 해 보고 싶다. 첫째, 여행을 해 보고 싶다. 특별히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왜 그런가? 나중에 해외여행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해외여행을 한 것은 대학교수가 되고 나서 한참 후 50대 때였다. 어느 겨울날 대학 동창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카자흐스탄에 가면 동포인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고, 우리처럼 민요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국문학 전공인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다. 민요가 있으면 설화도 있겠구나! 여름방학 되기만을 기다렸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다가 즉시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가자. 고려인들을 만나 구전설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년인 2000년 상반기 6개월간, 카자흐스탄에 머물면서 마음껏 여행하고 조사하였다. 고려인과 한국인의 공통점, 카자흐스탄 사람과 한국인의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신기하고 흥미로워, 논문도 쓰고 책도 펴냈다.

해외여행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강의가 달라졌다. 한반도 안의 문화와 문화만을 한국문학, 한국문화라고 생각한 내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밖에도 우리말을 쓰고 우리말로 문학을 하는 동포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남한과 북한, 거기에 해외 동포의 것까지 합한 총체가 한국문학, 한국문화임을 깨닫은 순간, 강의도 연구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물 안 개구리같은 시각에서 벗어

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문학과 한국문화를 강의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 무렵 내 컴퓨터가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동안 축적한 모든 강의 자료와 연구자료가 날아가 버려 공황상태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체험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다. 고려인의 구전설화 연구, 고려인의 생애담 연구, 카자흐스탄의 문화 연구 등등, 그 연장선상에서 탈북자(새터민)를 통한 북한 구전설화와 민족 연구로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해외여행 덕분이다.

둘째, 전공 서적 외의 책들을 많이 읽고 싶다. 나는 우수장학금을 받아야만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성적 유지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그 결과 등록금은 해결할 수 있었으나 잃어버린 게 있다. 바로 전공 외의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지 못했다.

은퇴 후 70세부터 지인들과 고전

이복규 (문화콘텐츠학부 명예교수)

읽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격주로 모여 세계의 고전을 읽고 토론한다. 햄릿, 동키호테, 죄와 벌, 아큐정전, 분노의 포도 등 동서양 고전을 자세히 읽고 생각을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은 감동은 특별해서 내 인생의 책으로 삼기로 했다. 오직 이 한 권만 읽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권이었다.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도 그 버금가는 작품이었다. 아,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20대 대학시절에 읽었더라면 좀 좋았을까? 탄식이 흘러나왔다.

말을 줄이자. 40대, 50대, 70대에도 여행과 독서가 내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피 끓는 청춘시절에 했던만큼 얼마나 더 크고 넓은 사람으로 빚었을까? 사랑스런 후배들이여, 당장 이번 방학부터 여행 또는 독서로, 시야를 넓히고 내면의 근육을 충실하게 키우기 바란다.

| **기자의 눈** |

현실과 온라인 그 너머로 떠나는 여행의 묘미

우리는 늘 어딘가로 떠나기를 꿈꾼다. 컵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 과제와 취업 준비로 빠곡하게 채운 시간표 속에서 여행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은 설렘을 안겨준다. 하지만 여행이 반드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에 오르는 거창한 이벤트일 필요는 없다. 일상에서 살짝 벗어난 모험이나 온라인을 통한 탐방처럼 여행은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평소 타지 않던 버스 노선을 골라 종점까지 가보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옆 동네의 낯선 골목을 걷는 것 또한 훌륭한 여행이다.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고 낯선 동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여행이 주는 새로움을 온몸으로 느낀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복잡한 생각의 흐름도 낯선 공간에서는 잠시 멈추며 지금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여행지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작은 해프닝도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길을 잃어 우연히 발견한 아담한 식당이나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하러 들어간 서점에서 찾은 재미있는 소설 같은 것들은 틀에 갇힌 계획 속에서는 얻기 힘든 여행의 선물이다. 우리는 낯선 환경 속에서 좀 더 느그러워지고 평소라면 짜증이나 날 법한 상황도 여행의 일부라며 가볍게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현상에서의 가벼운 여행은 대단한 자아 성찰이나 거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소박하지만, 새로운 경험은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고 무거운 일상의 압박에서 잠시 눈을 돌리는 모험을 하게 해준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가볍게 넘나드는 여행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원래의 자리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돼준다.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난 현실에서 탐험만이 여행의 전부는 아니다. △시간 △공간 △비용의 제약으로 당장 여행을 떠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모니터와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세상으로 모험을 떠난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세상이 제공하는 여행의 방식은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 또 이런 형태의 탐방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 또한 현실의 경험 못지않게 흥미롭다.

한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방식은 타인의 시선을 빌려 떠나는 여행이다. 유튜브에 접속해 누군가의 여행 브이로그를 재생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스위스의 눈 덮인 산맥이나 교토의 유적지로 이동한다.

화면 속 인물이 걷는 거리의 소음이나 낯선 언어로 커피를 주문하는 카페의 풍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대리만족을 넘어서 생생

한 현장감을 느낀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방 안에 앉아 세계를 유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세상을 직접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구글 어스의 스트리트 뷰를 켜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 도로 한가운데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를 활용한 게임 지오게서(GeoGuessr)는 온라인 여행의 묘미를 극대화한다.

지오게서는 지도상의 무작위 위치에 푯 떨어져 주변의 △표지판 △생태계 △도로의 생김새만으로 내가 세상 어디에 있는지를 추리하는 게임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오게서는 미지의 공간을 탐험하는 호기심과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

나아가 가상의 게임 공간으로 떠나는 여행은 현실의 물리적 법칙마저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끝없이 펼쳐진 오픈 월드 게임 속에서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거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세계의 도시를 거니는 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다.

자신의 상상력이 곧 제약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고 미지의 구역을 개척하며 여행이 주는 근본적인 호기심을 고스란히 해소한다. 이처럼 온라인 세상에서의 여행은 제약 없는 자유로움으로 우리의 일상에 또 다른 방식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방학을 만끽하고 있는 지금 자신만의 여행을 찾아 세상을 돌아다녀 보는 것은 어떨까?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수습의 눈** |

여름은 추억의 형태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여름은 항상 추억의 형태로 우리를 매혹한다. 여름 내내 폭폭 찌는 날씨에 고통받으면서, 여름이 지나기 뒤에는 그 계절의 밝은 햇살과 싱그러운 풍경을 추억하고 있다. 한참을 걷다 들어온 시원한 건물 안, 소나기가 내려 나뉜 쓴 우산, 피서지로 떠난 바닷가까지, 여름의 추억 토막들로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정도다. 여름은 점점 더 길고 뜨거워지지만, 우리는 어쩌서 그 더위를 잊어버리고 여름을 아름다운 계절로 회상하는 걸까.

여름은 강렬하다. 강한 햇살이 아스팔트와 흙을 가리지 않고 내리쬐고, 장대비는 끝도 없이 쏟아진다.

더위와 습기의 공격과, 수많은 벌레도 계절의 가혹함을 더한다. 그럼에도, 여름은 사계절 중 가장 강렬한 색채를 지녔다. 낮에는 잎사귀들이 저마다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빛깔을 자랑하고, 밤에는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풀벌레 소리가 차오른다. 이러한 풍경들은 우리의 기억에 잔상처럼 남아, 아무리 덥고 컸가에 벌레가 원망거리도록 잊어버리고는 아름다운 풍경만 남긴다. 어떤 터무니없는 내용의 글이라도 ‘여름이었냐’는 마지막 문장을 붙이면 감성적인 글이 된다는 농담처럼, 여름은 무엇이든 미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청춘이다.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고, 미숙하지만 가장 역동적인 시기의 청춘은 여름의 특성과 닮았다. 청춘 역시 활기차고 뜨거운 낮과 한결 차분해진 밤을 번갈아맞이한다. 한여름 장마철처럼 마음에 비가 쏟아지는 시기도 있다. 친구와 웃다가도 울고, 때로는 싸우고 멀어진다. 하지만 비가 내린 뒤에는 땅이 굳는 것처럼, 청춘의 폭풍우를 지나가며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청춘은 우리가 여름의 무더위와 장대비를 견디는 것과 같다. 돌아보면 친구와 싸운 기억은 유리창 너머로 장대비 소리를 들듯이 멀게만 느껴지고, 청춘을 함께한 친구

와 보낸 즐거운 추억은 선명했다. 빗물을 머금고 녹색으로 반들거려던 잎사귀가 누렇게 변해가면, 여름을 보낸 청춘도 떠나는 것이 느껴져 아쉽기도 하다.

그래서 여름은 추억이 쌓이기 더 쉽다. 폭폭 찌는 무더위와 습기를 함께 견디고, 같은 추억으로 여름이 미화된 친구와 더 가까워진다. 여름의 기억 미화는 그 기억 속에 친구가 있다면 더욱 박차를 가한다. 함께 떠나는 여행, 바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특별한 장소를, 무더위와 지루함이 떠다니는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잠깐의 활동이 추억의 넓이를 더해준다. 넓어진 추억은 친구가 있

어 깊이를 더하고, 함께 나누어 먹은 아이스크림이 그날 내리쬐던 맹렬보다 더 기억에 남게 된다.

다시 찾아온 여름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번 여름의 다양한 풍경들을 카메라 렌즈 속에 담고 추억을 덧붙일 것이다. 지금은 지난여름의 아를 다듬은 잠깐 잊어버리고 더위와 맞설 준비를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늘 그랬었던 것처럼, 다양한 기억과 추억을 칠한 사진으로 이번 여름을 그리워할 것이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 **수습의 눈** |

탕후루는 사라지고 소금빵은 남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행의 속도가눈에 띄게 빨라졌다. 몇 달, 심지어 몇 주 만에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다. 솜뿔 플랫뿔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하는 주역이다. 특정 디저트가 알고리즘을 타면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소비자들은 영상을 보고 찾아가 구한 뒤 다시 SNS에 후기를 올리며 유행을 자발적으로 재생산한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대중이 원해서 생긴 유행인지, 아니면 미디어의 반복적인 노출이 만든 착시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SNS 유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탕후루다. 과일 색깔과 바삭한 식감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변화

가마다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관련 챌린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반짝이던 인기가 식자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지금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폭발적인 인기만큼이나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탕후루의 빈자리는 곧바로 두바이쫄떡쿠키가 채웠다. 카페와 디저트 점포는 물론, 영화관과 일부 헌혈의 집 기념품으로도 등장할 만큼 화제를 모았지만 금세 버터떡과 우베로 다음 대체제에 자리를 내줬다. 소비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은 오늘날 초고속 소비 문화의 쓸쓸한 단면을 보인다.

하지만 모든 유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SNS를 달군 소금빵은 여전히 빵집의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부담 없는 가격과 익숙한 맛에 일상적인 식료, 트러플 등 소금빵의 변형 메뉴도 등장하며 독립된 카테고리로 진화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역시 비슷하다. 대표 브랜드인 요아정은 2023년 매출 51억 원에서 2024년 471억 원으로 성장하며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 과일, 시리얼, 초콜릿 등 다양한 토핑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특정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디지털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처럼 오래 살아남는 유행과 빠르게 사라지는 유행의 차이는 화제성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소금빵은 부담 없는 가격과 익숙한 맛으로 일상적인 간식이 됐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다양한 브랜드와 메뉴가 등장하며 하나의 디지털 카테고리 자리 잡았다. 결국 유행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상에 스며들거나 독립적인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디저트와 트렌

드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유행이 오래 살아남지는 않는다. 잠시 화제를 모은 뒤 자취를 감추는 유행도 있고,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하는 유행도 있다. 결국 유행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호소력 나 좋아요 수가 아니다. 소비자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소비하느냐가 유행의 미래를 좌우한다. 유행은 사라져도 사람들의 취향과 생활에 뿌리내린 문화는 오래 살아남는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만/파/식/적

인정 중독, 나를 가둔 건 타인의 시선이였다

이번 학기 첫날, 나는 노트 첫 장에 목표를 적었다. 전공 점수 유지, 그리고 한 학기 신문 잘 발행하기. 두 줄을 적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이대로만 하면 이번 학기는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계획표는 단단했다. 그런데 그 단단함이 사실은 불안을 가리는 포장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한참 뒤였다.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무렵, 나는 내가 자주 옆을 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내 점수보다 옆자리 동기의 점수가 먼저 궁금했다.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보다, 친구보다 잘 받았는지가 중요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마감을 넘기고 나면 내 신문이 괜찮은지보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표정부터 살폈다.

그제야 알았다. 내 목표들을 향해 달린다고 믿었지만, 실은 남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를 받아내려고 가고 있었다는 걸.

처음엔 이걸 성실함이라고 우겼다. 더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자신을 다독였다.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다. 예노모토 히로아키의 『인정욕구』도 좋은 성적으로 칭찬받겠다는 마음으로도 공부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는 인정욕구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욕구가 나를 삼키기 시작할 때다. 같은 책은 인정욕구에 휘둘리다 못해 인정 중독에 빠진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해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본다고 전한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기대한 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진다고 짚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험한 거래로 본다. 한 상담심리학 칼럼은 과도한 인정 욕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는 완벽주의에 빠지기 쉽고, 인정 중독자는 타인의 시선에 저장 잡힌 인생을 사는 셈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를 성취해 잠깐 만족해도 곧바로 다음 인정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 하고, 그런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피로로 녹초가 된다고도 했다. 저장 잡힌 인생, 그 표현 앞에서 나는 한참을 머뭇했다.

그렇다고 인정욕구를 도려낼 수는 없다. 같은 칼럼은 문제는 인정 욕구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고 말한다. 핵심은 평가의 손잡이를 누구에게 쥐어 줄 것인가다. 내 학기가 흔들린 이유는 그 손잡이를 통째로 남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 보기로 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대신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를 먼저 묻는다. 좋은 학점도, 잘 쓴 기사도 누군가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자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출발선에 돌 일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좋아요’와 댓글, 학점과 스펙이 끊임없이 우리를 졸세우는 시대에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청춘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저마다의 손잡이를 어딘가에 맡겨 둔 채 살아간다. 그 손잡이를 다시 내 손에 쥐는 일, 그것이 이번 학기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숙제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사설

대학 축제에서 아티스트 공연은 어떤 의미일까?

대학교에서 축제는 청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이자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학교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축제 기간이 되면 재학생 공연과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로 활기를 띤다. 특히, 아티스트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이끄는 축제의 ‘꽃’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에브리타임에 비롯한 다양한 대학 커뮤니티에서 아티스트 섭외와 관련된 찬반 의견이 반복된다. 더불어, 아티스트 라인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아티스트 공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이것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또한, 아티스트들이 학교에서 공연함으로써 대학의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평소 비싼 공연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아티스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반면, 아티스트 섭외에 부정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물가 상승과 함께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적 현실이다. 이에 학생들은 축제 예산이 유명 연예인 섭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의 상당수가 투입되어야 한다. 등록금의 본질은 학생들의 복지와 장학금 등 학생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이다. 그러나 축제 규모 경쟁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유명 아티스트 섭외에 투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나아가 학생 지원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참고: 생글생글.

비용 문제뿐 아니라 외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 재학생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표 매매 등의 부작용도 제기된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두늘(가명) 씨는 “연예인 공연은 어느덧 학교 축제의 상징이 됐다.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스 운영과 재학생 공연으로는 부족한 현실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제가 연예인 공연만 보는 행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아티스트 공연마저 없다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사라질 거 같다”며 아티스트 공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청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시현(가명) 씨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대학 축제의 본질은 학생들을 위한 행사여야 한다. 하지만 축제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정작 학생들이 축제의 우선순위에 점점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 공연으로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축제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학생들을 위한 축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렇듯 대학 축제에 관한 입장은 상이하다. 대학 축제가 상업화 되고 있는 현실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학은 아티스트 공연과 학생 중심의 축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책

삶이라는 계절의 편지 – **추신 일은 소모되지 않을 만큼만, 삶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_성립



▲ 출처 : 교보문고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책. 표지 앞 뒤에는 마치 하얀 종이봉투를 올려놓은 듯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추신 일은 소모되지 않을 만큼만, 삶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은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는 작가 ‘성립’의 신간이다. 스케치도, 화려한 색채도 없이 오직 검은 선과 하얀 여백만으로 자신만의 감성을 구축해 온 성립은 그림뿐 아니라 글을 통해서도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왔다.

이 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작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온 편지 형식의 글들을 엮었다. 단순한 에세이

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독자들에게 건네온 편지들을 한데 담았다는 점에서, 책 자체가 하나의 ‘편지봉투’ 처럼 느껴진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편지는 신청자들에게 몇 장의 그림과 함께 이메일로도 전해져 왔다. 그는 그림을 바탕으로 작가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독자들과 나눴다. 기자 역시 그의 작업을 오랜 세월 간 지켜보며 동시에 게절마다 도착하는 편지를 반갑게 받아냈다.

책은 그가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 살아오며 마주했던 불안과 결핍,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며 얻은 깨달음에 대해 다룬다. 그가 건네는 문장들은 예술가라는 특정 작업의 고층에 머물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외로움과 우울, 고립감, 공허함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을 타고난 그는 그러한 감정의 너울 속에서 작업을 이어 왔다. 어떤 날에는 상처가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고, 또 어떤 날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사람들은 결국 상처의 ‘승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깨닫고는 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승화하지 않으면 그저 아픈 내색밖에 안 하는 꼴이 되고 만니까요. 작업이 일이 된 지 몇 년이 지나면 해, 나는 그 사실 때문에 자독한 외

로움에 사무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의 숙명을 말하는 듯한 이 문장은,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인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렇게 흔들리며 흘러온 10년 동안 그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진다. “나는 왜 이럴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일까?’를 되뇌던 작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적는다. “여러 문제들은 허공을 떠도는 습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가끔은 나를 괴롭히고 가끔은 꽤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문제가 허상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부정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 태도, 그가 긴 시간을 지나 도달한 결론은 담백하지만 그만큼 깊어 있다.

그의 편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자는 올여름에도 작가가 보내올 편지를 기다린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내년 봄에도. 이제 그의 편지는 그림 작업만큼이나 많은 독자들이 계절의 흐름 속에서 기다리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됐다.

앞으로도 계절이 하나둘 무르익어 갈 때마다 그의 편지와 그 안에 담긴 통찰 역시 함께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조금 더 견디게 하는, 쫓지만 강한 여운의 추신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장소

조선의 역사를 걷다 – **남한산성 행궁**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광주시를 비롯해 성남시와 하남시에도 일부 걸쳐 있는 역사적인 산성이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할 계획이 좌절되자 남한산성을 새로운 피난처로 삼았다. 이후 이곳에서 청나라 군대와 47일간 항전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품은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또한, 행궁, 수어

장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 명소다.

기자가 직접 남한산성을 올라가 보며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곳은 바로 ‘남한산성 행궁’이다. 남한산성 행궁은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했을 때, 한양의 궁궐을 대신해 국왕이 머물 피난처로 운영하기 위한 임시 궁궐로 1626년에 건립됐다.

행궁은 남한산성 로터리 주차장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인근에 있다. 더불어, 조선 시대 궁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부속 건물이 보존돼 있다. 대표적으로 제사를 지내던 △재덕당, 국왕의 생활공간인 △내행전, 국왕이 병사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호궐를 준비하던 △외행전이 있다. 이 밖에도,

- **주 소**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935-1
- **운영시간** : 하절기(4월~6월) - 10:00~18:00, 동절기(11월~3월) - 10: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입 장 료** : 성인(만 19세~만 64세) - 2,000원, 청소년(만 7세~만 18세) - 1,000원
경기도민, 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군인 - 무료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음악

싱그러움과 장마, 그리고 바다

여름의 각기 다른 모습들이다. 누군가에게는 여름은 짙푸른 초록의 싱그러움이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녹둑하게 적시는 장마의 습함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트이게 하는 푸른 바다다. 여름이 품은 서로 다른 세 모습이 느껴지는 노래들을 소개한다.



▲ 출처 : 바이브

♪ 〈토끼〉 - 우예린

“그러니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줘
그러니 더 많이 더 크게 웃어줘
모든걸 다 잃어도 좋을만큼 나
오롯이 내 마음을 준 거니까”

가수는 사랑이라는 수식에 강력한 변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말한다. 자신이 지켜오던 것은 아무래도 좋을 만큼 상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말이다. 누구에게나 미운 점은 존재한다지만, 그것 또한 사랑해 주고픈 게 자신의 오롯한 마음이라 노래한다. 한없이 부푼 예쁜 마음으로 응원하고 힘껏 믿어줘 테니 더 높이 더 멀리 뛰어달라는 메시지가 청량한 목소리와 선율을 타고 싱그럽게 흐른다.



▲ 출처 : 바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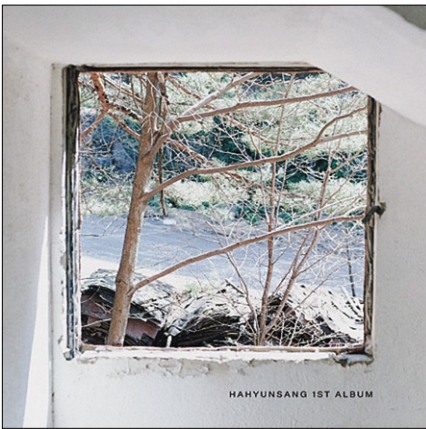
♪ 〈소속〉 - 서기

“뒤 돌아보면 좀 우습도록
짧은 비 내리는 사이 우리의 어린 날이
아주 투명히 젖어가고 있어”

소속은 소나기가 한 번 내리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비가 내리는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소나기와 장마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소나기처럼 갑작스레 찾아온 이별이 남긴 감정의 습도는 기나긴 장마와 맞닿아 있다. 비는 금방 그칠지라도 대기 중에 오래도록 남아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히는 녹둑한 슬픔은 장마와 다를 바 없다. 소나기 내리는 짧은 찰나에 투명하게 젖어버린 서툰 청춘의 기억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장마철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습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출처 : 바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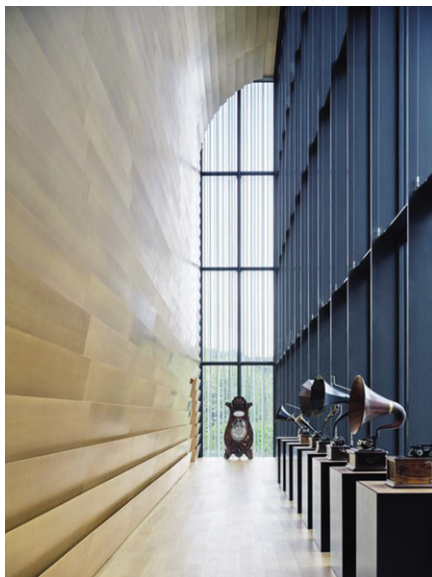
♪ 〈파도〉 - 하현상

“사랑하던 말이에요 없으면 난 안돼요
이대로 잠겨가도 후회하지 않아요”

잔잔하게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겹쳐지며 벽차오르는 음향은 마치 모래 위로 쉽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연상시킨다. 이 곡의 가사는 다른 노래들과 비교해 채 반도 되지 않는 만큼 적으나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감정의 농도는 짙다.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이대로 잠겨 들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고백은 속절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을 닮아 있다. 짧은 가사 뒤로 밀려오는 파도 같은 선율이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오늘의 전시회

아름다운 소리를 눈과 귀로 느끼며 – **서울 오디오 박물관**



서울 서초구에 오디오 전문 박물관이 한국 최초로 개관했다. 오디오는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생소한 취미로 통한다. 또한, 취미의 끝판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고,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렇듯 쉽게 접해보기 어려운 오디오지만 정몽진 KCC 회장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고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산들로 채워진 오디오를 오디오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디움은 오디오 컬렉션뿐 아니라 박물관의 내부와 외부도 볼만하다. 건축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볼 수 있는 ‘베르사유 건축

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부분 내부 특별상도 받은 전적이 있다. 이상은 세계에서 단 7곳의 박물관만 선정하는데, 오디오 박물관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자연광, 음향 환경, 공간의 곡선 구조까지 ‘보이지 않는 소리’를 눈과 몸, 공간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공간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감상하기 좋은 전시회다.

오디움의 컬렉션으로는 19세기 에디슨의 초기 축음기부터 20세기 웨스턴 일렉트릭 혼 스피커 등 약 150년 정도 오디오의 역사와도 같은 작품들이 있다. 약 2시간 동안 이 컬렉션들을 구경하는 투어가 있는데, 두 명의 도슨트가 설명하는 오디오의 역사를 알 수 있다. 19세기의 축음기부터 현대의 하이엔드 스피커까지 오디오의 진화에 대해 역순으로 설명하며 진행된다.

1950/60년대에 미국 가정용 스피커 제품들과 1980/40년대 세계 영화 음향 시스템을 만든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과 독일의 클랑필름의 라우드 스피커 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오디오 기기를 만나볼 수 있다. 오디오 감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오디오에 따라 소리의 느낌과 질감이 다르다는 걸 생생하게 비교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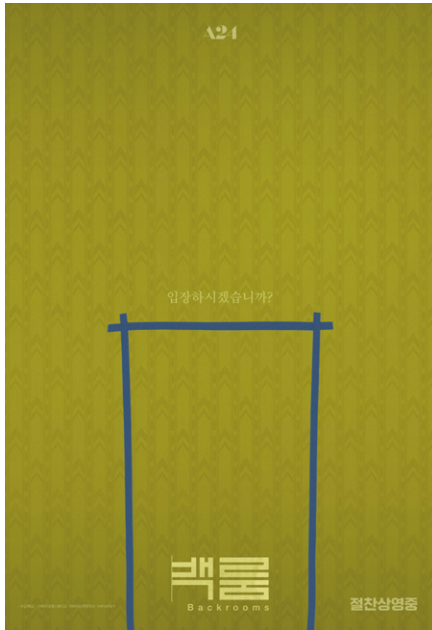
- **전시기간** : 상시 전시 · **관람비용** : 무료
- **전시장소** : 오디오 박물관 (서울 서초구 헌릉로8길 6)
- **관람시간** : 목, 금, 토 10:00~17:30 (17시 입장마감) / 100% 예약제

박희린 수습기자

<pphhrr0904@naver.com>

오늘의 영화

낯설고도 기이한 무한의 미로 속으로 – **백룸 (2026)**



▲ 출처 : 네이버 영화

2026년 5월 27일 개봉한 케인 파슨스 감독의 Sci-Fi 공포 영화 〈백룸〉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동명의 크리피파스타

(도시 전설)를 성공적으로 스크린에 옮겨낸 영화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주인공 클라크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입구도 출구도 없는 기이한 차원인 백룸의 입구를 자신의 가구 가게 지하에서 찾아냈다. 클라크는 낡은 노란 색 벽지와 축축한 카펫, 그리고 끊임없이 웅웅거리는 형광등 소리만이 가득한 낯선 공간을 탐방하며 일상의 뒤틀림을 보여줬다.

클라크는 홀로 외롭고 공포스러운 탐색을 이어가던 중 이 공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직원인 바비와 컷을 데리고 백룸 탐방을 계속한다. 이후 클라크가 밧줄로 바비의 몸을 묶어 백룸의 더 깊은 곳을 캤 코더로 찍어오게 하던 중 바비가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습격당한 후, 실해당하며 분위기가 고조된다.

클라크가 정기 상담 시간에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메리 박사는 마지막 상담에서 클라크가 보여준 백룸의 간이 지도를 기억해 내 백룸에 입장한다. 그러나 백룸에서 다시 마주한 클라크는 백룸에 완전히 동화돼 현실보다 백룸을 더 고향같이 여기고 있

었다. 메리 박사는 간신히 클라크를 설득해 백룸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그 순간 백룸이라는 공간이 기억하는 클라크의 뒤틀린 모습이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 그녀의 탈출을 방해한다.

독창적인 세계관 구현과 압도적인 심리적 압박감 면에서 대중의 찬사를 받은 〈백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달성했다. 또 20세의 어린 나이에 스카우트된 천재 감독 케인 파슨스의 경이로운 연출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며 오고 있다.

〈백룸〉의 활약은 국내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내 개봉 후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리미널 스페이스를 다룬 공포 장르 영화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주말 클라크와 메리 박사의 숨 막히는 여정에 합류해 출구 없는 기이한 미로 속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패션

대한민국 32강 진출 무산, 날아간 4년의 시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 속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국가에 본선 기회를 제공했다.

엄격해진 판정 기준과 늘어난 추가시간 등으로 대회 초반부터 많은 골을 만들어가며 쟁쟁한 경기가 펼쳐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A조에서 1승 2패(승점 3점)를 기록했다. 1차전에서 치열한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 올라온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이루며 첫 승을 거뒀다.

이후 이뤄진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0대1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자아냈다. 손흥민 선수를 다소 일찍 교체하여 나온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상대의 집중 마크가 너무 심해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고, 경기 흐름상 리프레시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91.22%이었다. 남아공전에서 비기거나 이기기만 해도 자격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0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32강을 진출하기 위한 경우의 수 9개 중 3개 이상이 적중해야 했다. 하지만 단 1가지만 충족해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대회 규모가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조 3위를 해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와일



▲ 출처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인스타

드카드 제도’가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결과다. 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8년 만의 조별리그 탈락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유럽 빅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이다. 월드컵레스 선수들이 포지션 별로 준비한 홍명보호의 월드컵은 선수들의 기량을 맘껏 펼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홍명보 감독과 협회는 선수 개인의 능력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평이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에게 다수 존재한다.

주요 패인으로는 32강에 자격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남아공전에서 주장 손흥민을 제외하는 등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패착이

뒀다. 손흥민은 경기 흐름이 망가진 뒤에 후반 교체 카드로 쓰였다. 또한,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내내 ‘쓰리백’ 수비 전술만 사용하는 등 전술의 유연성이 일관되지 못했다.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야 했던 남아공전에서 공격적인 전술이 아닌 수비 지향적인 전술에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상당수다. 뒤처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전술 변화는 전무했다. 수비수를 줄이고 공격수를 늘리는 포백 전환 등의 전술 변화가 필요했으나, 단순히 선수 교체만 이뤄졌다.

남아공전을 마지막으로 대표팀은 지난 6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돌아온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 당시 팬들의 거센 비판 속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공황을 빠져나갔다. 귀국 후 논란이 이어지자 홍 전 감독은 7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으며, 국회 청문회 중인 채택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혼자 끝까지 감당하고,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세빈 수습기자

<hsb061207@gmail.com>